네오아트센터

# 강구철

## “무위[無爲]이후 - 사람들”

**2026. 10. 14. WED — 12. 06. SAT**





OPENING

2026. 10. 14. WED 16:00

**1전시관**

NEO Art 수암골 네오아트센터

# 강구철

Kang Koo Cheul



중국문화대학 예술대학원 졸업

수상 경력 /
대덕구민대상 문화예술부문 수상 (2023)
대전광역시 문화상 수상 (2023)

개인전 /
16회 (대전/서울/대만 등)

단체전 /
300여 회

작품 소장처 /
국립현대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외교통상부,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청, 북경올림픽 미술관, 아너스빌오피스텔, 우리병원, 한남대학교

현재 /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 운영위원
이응노미술관 이사
한남대학교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 회화과 명예교수

NEO Art

# 무위(無爲) 이후, 사람들은 움직인다
# 생동하는 삶과 웅장한 연대의 파노라마

강구철 교수와의 특별한 인연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되었다. 어느 날 필자가 출연한 MBC 다큐멘터리를 보신 교수님께서 먼저 연락을 건네오신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수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가장 내 뇌리에 깊이 남은 것은, 방송 중 찰나처럼 스쳐 갔던 '전자 도록(e-도록)'에 대한 언급을 놓치지 않고 짚어내시던 그분의 열린 시선이었다.

30년 넘게 묵묵히 한국화의 맥을 이어온 중견 화가가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호기심을 안고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 그것은 강구철이라는 예술가가 얼마나 유연하고 진취적인 감각을 품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였다. 그날의 통화로 싹을 틔운 인연이 무르익어, 마침내 오는 14일 네오아트센터 1관에서 그의 예술 세계를 집대성한 초대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예술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작가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라 했던가. 이번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관람객을 가장 먼저 압도하는 것은 작품의 표면을 묵직하게 감싸고 있는 독특한 마티에르(질감)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투박하게 펴 발라진 흙벽과 아궁이의 그을음에서 묘한 안도감과 평온함을 느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끈하고 차가운 인공 건축물인 아파트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흙벽이 주는 따뜻한 감성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숨 쉬고 있다.

강구철 교수가 지점토(흙)와 혼합재료를 겹겹이 쌓아 올려 빚어낸 다소 거친 마티에르는 바로 우리 삶의 DNA와 맞닿아 있는 원초적 온기의 현대적 환생이다. 완벽히 정제된 평면이 아니라 자연의 숨구멍이 살아 숨 쉬는 듯한 이 토벽(土壁) 같은 캔버스 덕분에, 그 위에 얹힌 도상들은 허공에 들뜨지 않고 깊은 대지에 뿌리를 내린 채 정겨운 생명력을 뿜어낸다.

작가가 오랜 시간 천착해 온 화두는 인위(人爲)가 개입하지 않은 '무위(無爲)'의 세계와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旅情)'이다. 이번 전시를 앞두고 쓴 작가 노트에서 그는 전시의 주제를 '무위[無爲] 이후 — 사람들'이라 명명하며 자신의 철학적 배경과 감성의 진화를 고백한다. 오랫동안 자연의 질서와 정적인 무위의 세계를 향해 있던 작가의 시선은 이제 사람들의 삶과 움직임 한가운데로 온전히 향해 있다. 작가는 이를 두고 "기존 작업과의 단절이나 방향의 선회가 아닌, 자연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해 온 작가의 시선이 확장되고 진화하며 도달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선언한다. 자연의 영원성 속에 멈춰 서 있던 시선이 비로소 삶의 생동하는 현장으로 스며든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궤적은 새롭게 선보이는 2미터가 넘는 대형 군집화들 속에서 경이롭게 시각화된다. 화면을 가득 채운 다채로운 '군중'의 율동을 보라. 파랑, 초록, 보라, 노랑 등 각양각색의 옷을 입은 인물상들은 저마다 손을 흔들고 춤을 추거나 누군가와 손을 잡고 묵묵히 걷는다. 단 한 사람도 같은 모양과 색을 지니지 않은 이 군상들은 복잡다단한 우리네 삶의 짙은 다양성을 긍정한다. 홀로 서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은 철저히 계산되고 목적을 가진 작위(作爲)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몇 걸음 물러서서 작품 전체를 조망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시각적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 각기 다르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얽히고설키며 거대한 곡선의 여백과 흐름을 만들어내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숲이나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장엄한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수많은 인간이 모여 만드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별자의 의도를 넘어선 고유한 질서와 생명력을 지닌 '또 다른 형태의 자연'을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작가의 날카롭고도 따뜻한 통찰이다. 극명한 다양성 속에 숨겨진 이 웅장한 공통점은, 인간이라는 존재 역시 자연이라는 거대한 섭리 안에서 자유롭게 요동치는 일부분임을 나지막이 증명하며 뜨거운 연대의 메시지를 던진다.

또한 대형 화면을 여러 폭으로 구성한 〈여정〉 연작은 전통 병풍의 장중함을 현대적인 부조 기법으로 재해석해 비움과 품음의 미학을 뽐내며, 분홍빛과 미색이 아지랑이처럼 번지는 〈무위〉 소품 연작은 팝(Pop)적인 색채의 호랑이와 새들을 통해 전통 민화의 해학을 감각적으로 변주한다. 이처럼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작품들이 네오아트센터 1관의 공간 안에서 흙벽의 온기를 매개로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처럼 어우러진다.

30년간 한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해 온 강구철 교수는 정년퇴임을 기점으로,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욱 자유롭고 실험적인 창작의 바다로 몸을 던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등 유수 기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대전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하며 그 예술적 가치를 확고히 인정받았음에도 그의 붓끝은 멈추지 않는다.

무위의 정적에서 출발해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흐름의 전시가 다가오는 14일 막을 올린다. 흙벽의 짙은 온기가 그리운 계절,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스스로에게 내재된 감성의 DNA를 일깨우며 서로의 움직임 속에서 숨 쉬고 있는 '또 하나의 자연'을 발견하는 벅찬 감동을 누리길 기대한다.
/ 네오아트센터 박정식 대표



**여정(旅情)**

259x193cm,
혼합재료, 2026



**여정(旅情)**

259x193cm,
혼합재료,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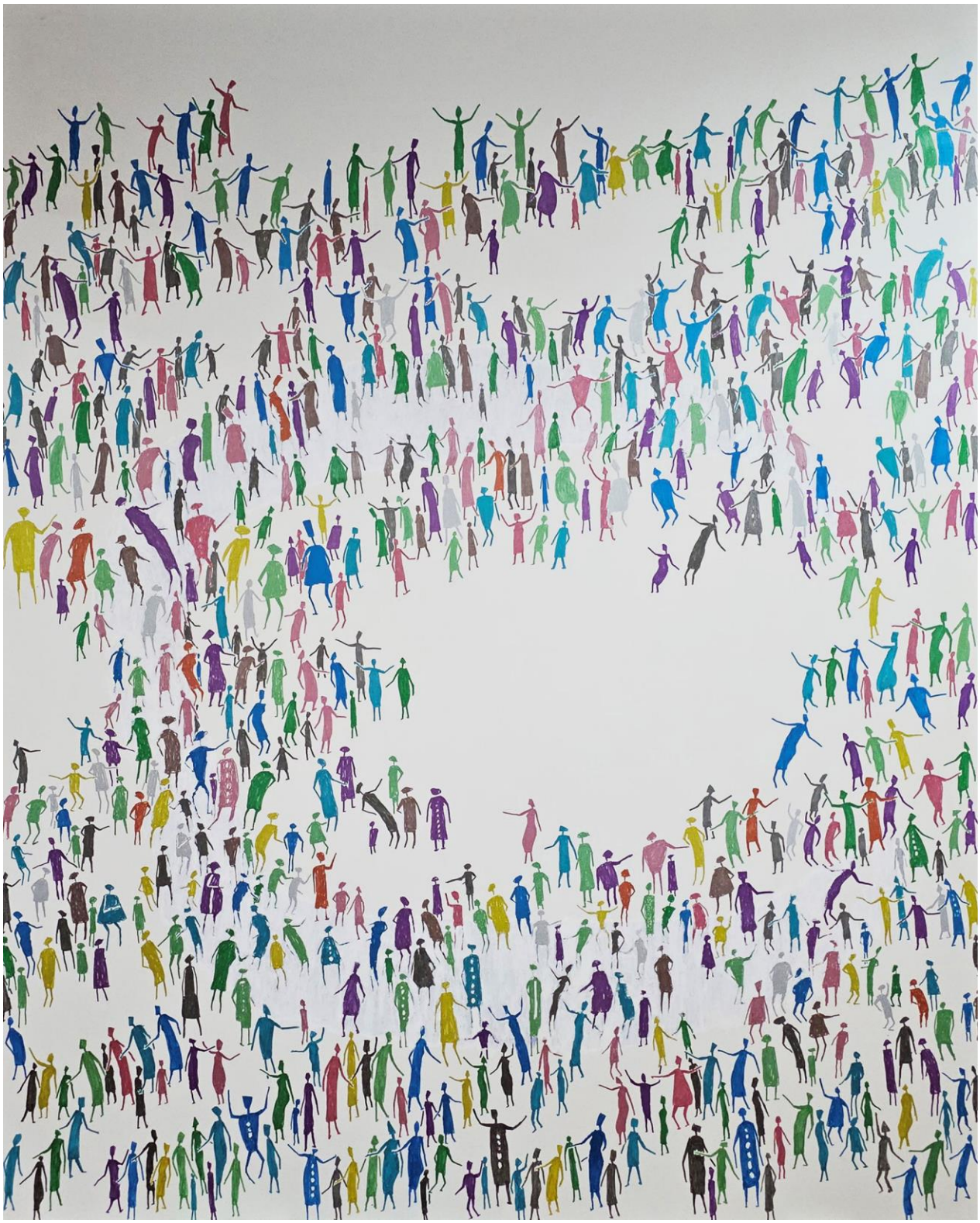
**여정(旅情)**

259x193cm,
혼합재료, 2026



**여정(旅情)**

259x193cm,
혼합재료, 2026



**무위(無爲)**

227x181cm,
혼합재료, 2026



**무위(無爲)**

53x45cm,
혼합재료, 2026



**무위(無爲)**

53x45cm,
혼합재료,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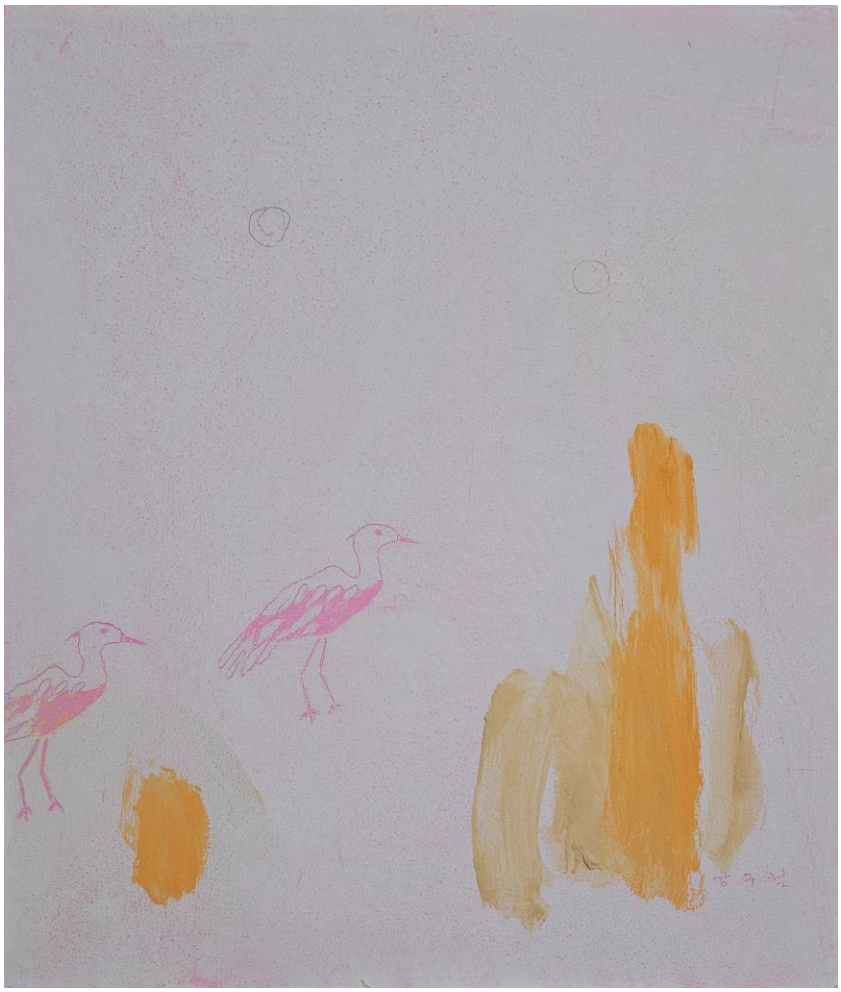
**무위(無爲)**

110x97cm,
혼합재료, 2025



**무위(無爲)**

162x130cm,
혼합재료, 2026



**무위(無爲)**

53x45cm,
혼합재료, 2026



**여정(旅情)**

110x97cm,
혼합재료, 2025




**여정(旅情)**

73x61cm,
혼합재료, 2025

NEO Art